

- 1.종교다원주의 배경
- 1.동성애 반대
- 1.차별금지법 반대
- 1.자유민주주의의 수호

제1126호
7월 20일
2019년
토요일

牧羊新聞

총회 상회비 계좌번호 안내

■ 국민은행
061701-04-176877

■ 예금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농협
301-0153-7296-01

■ 문의
02)2675-5181~3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 서울 다-07857 주간

www.mokyangnews.com(목양신문 지면보기 : www.aogk.org) 이메일 : mok2677@naver.com 전화 : 02)2677-9935~7 FAX : 0504)027-0897



‘2019 경기남부경찰 선교의 밤’ 열려

조용목 목사 설교...기독교경찰관들, 헌신의 보람과 사명감 충만

‘2019 경기남부경찰 선교의 밤’ 행사가 지난 7월 14일(주일) 오후 7시 은혜와진리교회 인양성전 대성전에서 경기남부경찰 기독교연합회 주관으로 많은 기독교경찰관과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경기남부경찰청과 산하 경찰관서에 근무하는 경찰가족을 비롯한 13만 전국 경찰가족의 복음화를 기원하였다.

연합회 이영필 회장의 사회로 경기남부경찰청 안기남 기동단장의 대표기도, 폴리스찬 콰이어와 수원경찰청교회 운동부 회장의 찬양, 북부경찰청교회 신승영 회장과 중부경찰청교회 이현수 회장의 국가와 민족과 경찰복음화를 위한 특별기도, 남부경찰청교회 박은수 회장의 성경봉독, 조용목 목사(교회와경찰중앙협의회 고문, 제단법인 참수리사랑 이사장)의 설교 순서로 이날 예배와 행사가 진행되었다.

조용목牧사는 국가안보의 임무를 담당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수

고하는 경찰관들의 노고를 위로해 주고 엠 5:8.9 말씀을 본문으로 한 ‘빛의 열매’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가지며 복음전파와 직임에 대한 사명감이 충만하게 해주었다.

조용목 목사는 설교에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된 성도에게는 특히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열매가 항상 있고, 또 이를 모든 일의 판단과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서 결단하고 행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었다.

이어서 신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배용주 치안정감의 격려사, 경기남부경찰청 경무위원장 권태진 목사(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와 한국경찰선교회 회장 김병철 목사(전 경북경찰청장)의 축사, 경기남부경찰청 경무실장 박봉상 목사의 환영사가 있었다.

배용주 청장은 경찰관들을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

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경찰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것을 다짐하였다.

계속해서 순직 경찰관 유가족과 근무 중 공상을 입은 경찰관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단법인 참수리 사랑’의 취지와 경과보고 및 성가를 담은 동영상 상영이 있었다.

제단 홍보위원장 박노아 목사는 “제단의 설립 당시부터 헌신해 오신 조용목 목사님과 은혜와진리교회의 지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면서 지속적인 기도와 지원을 부탁하였다. 조용목 목사는 ‘기독교연합회’와 ‘참수리 사랑’에 각각 은혜와진리교회의 후원금과 기부금을 전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내빈 소개에 이어 조용목 목사의 축도로 예배와 행사의 모든 순서를 마친 후, 행사에 참석한 경찰관과 선교단체 임직원들은 조용목 목사와 즐겁게 기념촬영을 하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남, 영남동, 대구경북, 부산, 부산동 지방회연합 구역장 세미나

구역장들, 구령의 열정과 교회부흥을 위한 사명감당 다짐



설교
조용목 목사
정책위원장

경남지방회, 영남동지방회, 대구경북지방회, 부산지방회, 부산동지방회 등 5개 지방회가 연합한 가운데 지난 7월 9일(토) 저녁 7시 30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남로 22번길 순복음갈릴리교회(담임 정영진 목사, 교단 서기)에서 지방회연합 구역장세미나를 개최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가

슴에 품고 눈물의 기도로 헌신하는 구역장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임하기를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단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를 강사로 ‘주의 용사여 일어나라’라는 주제 아래 열린 이번 세미나는 정영진 목사의 사회로 시작하여 영남동지방회 증경회장 오경덕 목사의 대표기도, 조용목 목사의 말씀증거 순서로 이어졌다.

조용목 목사는 마 25:20-23 말씀을 본문으로 ‘착

하고 충성된 종’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구역장의 역할과 사명, 복음의 핵심인 구속의 은혜와 진리,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바른 자세에 관해 말씀하고 의무감과 사명감 이상의 행복감을 가지고 헌신하도록 당부하였다. 말씀에 감화된 구역장들은 주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며 교회의 부흥과 성령충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고 조용목 목사는 구역장들이 건강하고 기쁨이 평안하여 직분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신유와 축복의 기도를 해주었다.



‘좋은 결말이 보장된 사람’



조용목 목사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시 127:1~2)

무슨 일이든 과정이 중요하지만 결말은 더욱 중요합니다. 결말이 좋으면 힘들었던 과정은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기쁘고 보람 있게 됩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면 언제나 좋은 결말을 보게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수고하면 반드시 좋은 결말에 도달하게 되는 비결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하여 본문 말씀에 그 긍정적인 대답이 있습니다.

첫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집을 짓는 자로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비용과 노력을 들여 지은 집이 창수와 바람으로 인하여 무너지면 집을 지은 사람의 노력과 수고가 헛된 것이 됩니다. 반면에 그 집이 견고히 서 있으면 그 집을 지은 사람의 노력과 수고가 값진 것이 됩니다. 우리가 결말이 헛되지 않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집을 세워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며 방주의 재료와 규모와 건조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시고 홍수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가 다 멸절되었으나 방주 안에 있는 생명체는 다 살았습니다. 120년간 인내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지은 노아의 노력과 수고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결말이 좋았습니다.

둘째,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가나안에 있는 성들은 크고 견고하며, 사람들은 체력이 강대하고 강한 무기와 전투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런 것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은 견고한 성이어서 성문만 굳게 닫고 있으면 난공불락이었습니다. 군사들은 성을 파수하기 위해 만반의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파수와 방비가 허사가

되게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성을 한바퀴씩 돌고 칠일째는 일곱 바퀴를 돈 다음 일제히 함성을 지르니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이룩하고 취득한 것을 잃지 아니하려고 온갖 대책을 세웁니다. 그런데 사람이 결코 지킬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영혼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죄로 인하여 문지방이 부서져 버리고 성곽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사람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자기 영혼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지 않으시면 멸망이라는 최악의 결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돌봄을 받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최상의 결말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셋째,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열매를 먹음이 헛되다 하였습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것에 매여 달려 다닐지 헛바퀴 돌 듯 하다 보면 어느 틈에 늦고 쇠약해지고 맙니다. 사람이 바라는 것이 이성뿐이면 인생이란 덧없고 허무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서 행한 일들이 무익하거나 무의미하게 되지 않습니다. 자고 깨며 먹고 일하는 것이 모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그가 행한 모든 일이 그리스도의 신령에 앞을 세울 때 칭찬과 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본문의 끝에는 복스러운 약속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영혼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명령을 준행하는 사람은 근심과 두려움을 주는 문제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이한 평안으로 잠을 자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안식과 담담함을 주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은혜와진리교회)

차별금지법 반대,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제68차 총회 제3회 임원회

교단 총회(총회장 신재영 목사) 제68차 총회 제3회 임원회가 지난 7월 15일(월) 오후 2시 제주시 광복동로 제주한미음교회(담임 김건수 목사, 교단 회계)에서 열려 WCC종교다원주의자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차별금지법을 합법화하려는 세력들의 꾀계를 과감히 물리치고 동성애자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북한의 핵폐기와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한바름 되어 기도한 뒤 각종 회무를 처리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총무 이경진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재무 한순남 목사의 기도, 부총회장 정의섭 목사의 설교 순서로 이어졌다. 정 목사는 이날 살후 2:16, 17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환난과 고통 각종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믿음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임하게 될 줄로 믿는 믿음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참석자

들을 축복했다.

정의섭 목사의 축도 후 곧바로 의장 신재영 목사 주재로 열린 회의는 서기 이경진 목사의 회원점명, 의장 신재영 목사의 개회선언 후 총무보고사항이 이어졌다. 보고사항에서 교단 총무 이경진 목사는 교단업무보고사항으로 68차 총회장 신재영 목사 취임예배, 총회신학교 1학기 종강예배, 총회목회대학원 1학기 종강예배가 드려졌음을 보고하고 68차 총회 제1회 고위위원회로 모여 2020년도 목사고시일정을 확정했음과 목대원 상반기 제정학기성료 등의 내용이 보고되었다.

이어 재무 한순남 목사의 수입보고, 회계 김건수 목사의 지출보고 순서로 진행되었다. 결의 및 안건토의 사항으로 교회가입 청원, 교역자가입 청원, 교역자복귀 청원, 교회주소변경 보고, 교회명칭변경 보고, 교회전출입 청원, 교역자은퇴 보고 등의 내용이 결의 및 보고되었다.

기타사항으로 제7회 청소년연합수련회, 2019년 전국 신학생연합 개강수련회, 아세아태평양 하나님의성회 총회장회의 등의 내용이 보고되었고 2차 실행위원회 일정을 확정했다.



필리핀 한국전 참전용사 초청 보은행사

전장서 꽃핀 전우애, 계승·발전 다짐한 양국

6·25한국전쟁 발발 69주년, 한국·필리핀 수교 70주년을 기념해 지난 7월 1일(월) 서울 프레스센터 대강당에서 필리핀 한국참전용사 초청 기념식이 열렸다.

코리아네이버스이사장 이정익 목사, 사무총장 우순태 목사)와 필리핀 한국참전용사회(회장 맥시모 P.영)가 공동주최한 이날 행사는 한국전에 참전해 우리나라를 도운 필리핀과 참전용사들에게 감사하고 전우애 파트너십으로 미래를 위한 협력관계를 증진하고자 열렸다.

공동대회장 박노훈 목사의 사회로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필리핀 참전용사 10명과 그 가족, 필리핀 국방부차관 겸 보훈처장에른스트G. 카로리나, 신성호 필리핀 한인총연합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대회장 이정익 목사는 초대사에서 “한국전쟁에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병해 피 흘려 싸운 필리핀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늦은 감이 있지만, 참전용사들과 그 가족들을 한국에 초청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집행위원장 지형은 목사도 환영사를 통해 “나의 부진도 6·25전쟁에 참여하였고 국립묘지에 안장되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한 반도에 평화의 상상력이 확대되어 가길 기대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지 목사의 환영사 후에는 유엔기, 태극기, 필리핀 국기, 필리핀 참전부대기를 든 가수단의 입장으로 분위기가 달아올랐다. 필리핀 국기와 애국가가 연이어 연주될 때는 참석자들이 필리핀기와 태극기를 함께 펼치는 우정의 퍼포먼스를 연출했다. 이어 필리핀 참전용사의 체험담과 그 가족들을 소개하는 영상물이 상영됐다.

한기보협, 제69주 6·25상기 기념예배

탈북귀순자 김영순 씨, 북한실상에 대해 강연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대표회장 한홍교 목사)이하 한기보협)는 지난 6월 25일(화) 오전 11시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동 협의회 비전센터에서 제69주년 6.25상기 기념예배 및 김영순(탈북귀순자)의 북한실상을 듣는 특별강의를 가졌다.

김철용 목사(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의 사회로 열린 1부 예배는 이창희 목사(공동회장)의 기도, 임덕수 목사(오순절성회)의 성경봉독, 김보미 목사(일본선교사)의 특별찬양, 대표회장 한홍교 목사의 삼상 7:3-11 말씀을 본문으로 한 ‘이 나라가 나갈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한홍교 목사는 말씀을 통해 “현 우리가 사는 세대는 6.25를 겪은 사람은 20%뿐이다. 80%는 6.25세대가 아니다. 무신론을 주창하는 북한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릴까 생각해야 한다.”며, “기독교인은 모두 보수 우파다. 전쟁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무뎠던 기



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했다. 아직도 대한민국은 전장이 휴전상태인 나라이다. 기독교인들은 다시 6.25와 같은 일이 없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에 이수진 목사(로고스협의회)의 봉헌찬양, 김해자 목사(예장 돌로스총회장)의 봉헌기도, 이의근 목사(협인이사)의 격려사, 한홍교 목사(대표회장)의 인사, 김준희 목사

(사무총장)의 광고, 장한국 목사(진리총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2부 순서는 신한철 목사(삼일회장)의 주관으로 애국가 제창, 6.25노래 제창, 만세삼창을 박영호 목사(한국문선교회장)의 선창으로 했다. 3부 순서는 탈북귀순자 김영순 선생을 초빙강사로 나서서 현재 북한 실상에 대해 듣는 특별시간을 가졌다.

서울성시화운동, 나라 위한 기도회 열어

최낙중 목사 “대한민국도 한국교회도 희망이 있다”



서울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최낙중 목사) 주최 ‘성시화 기도회’가 지난 7월 5일(금) 오전 11시 서울 관악구 해오름교회(담임목사 최진수 목사) 베들레헴성전에서 열렸다.

지난 5월 3일 열린 1차 기도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날 기도회는 임인기 목사의

사회로 최낙중 목사가 역대하 20장 5-13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으로 하는 합심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최 목사는 “여호사밧 왕 때 모압이 침략을 했다. 금식하며 오직 바라보며 기도했다. 무명의 선지자 아하시엘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나님은 왕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

라 선지자 아하시엘을 통해 말씀하셨다. 그 결과 모압은 자중지란으로 패했다.”며 “동성애, 안티 기독교, 성평등 등 우리나라를 생각하면서 눈물로 기도한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육에 속한 자가 영에 속한 자가 공격을 한다. 이스라엘은 영에 속한 사람들이고 모압은 육에 속한 사람들을 상징한다.”며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 종교다원주의, 성령 없는 육에 속한 사람들, 변질된 기독교인들이 많다.”고 말했다.

“오늘의 영적 지도자들이 불이 꺼진 회차가 되었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낸 최 목사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우리의 자만이 문제를 일으킨다. 우리는 끝까지 겸손해야 한다. 세상은 리더십이지만, 교회는 주님의 주권을 따르는 로드십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장총, 필리핀 지진 피해지역에 성금 전달

필리핀 클락 인근 바릭 바라게이(Balik Barangay) 지역

한국장로교총연합회(이하 한장총)에서는 필리핀 중부 클락 지진 피해 지역을 방문하여 성금을 전달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4월 22일 진도 6.1의 지진이 발생하여

건물이 반파되고 부상자가 속출하고 여진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불안을 겪고 있다.

송태선 목사(한장총 대표회장)는 27년 동안 이 지역에서 선교활동을 한 이명수 선교



사를 만나 성금을 전달하고 피해상황을 청취하였다. 교회건물 및 시설이 지진으로 파손된 것을 들은 송태선 목사는 “지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지역을 방문하여 상황을 보니 피해가 매우 큰 것을 보았다”고 하며 “한국교회가 어려움에 함께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며 특별히 선교사들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위로의 뜻을 전하였다.

이명수 선교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찾아온 한장총 대표회장과 한국교회의 관심에 크게 격려가 되었다”고 하며 “앞으로도 계속 기도하여주기를 요청”하였다. 이명수 선교사는 이곳 선교 현장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그리고 신학교를 세워 교육 및 선교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대한민국 평안을 위한 회개기도회 개최

대한민국여교역자협, 하나님께 회개와 간구

대한민국여교역자협의회(총재 유순임 목사, 대표회장 우정은 목사, 사무총장 김경호 목사)는 대한민국 평안을 위한 회개기도회를 지난 6월 25일(화) 오전 11시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소재 대한민국기도재단에서 드리고, 한민족의 화해와 한반도의 평화, 평화통일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협의회는 또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게을리한 잘못을 회개하는 기도시간도 아울러 가졌다.

‘무릇으로 대한민국과 세계를 가슴에 품고 비상하자’란 주제로 드린 이 기도회에 참석한 여성 목회자들은 6.25 한국전쟁 69주년을 상기하는 한편, 다시는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또한 건강한 가정과 교회, 그리고 아픔속에 처한 나라를 위해 부름 받고 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마디로 회개의 기도를 통해 나라의

독립과 민족해방의 중심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의 행동하는 기도였다.

경제적, 정치적, 외교적, 남북관계 등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자리였다.

동 협의회는 6.25 한국전쟁이 일어난 6월 25일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일로 정하고 매년 이날 동족상잔의 비극을 상기함과

동시에 한반도의 평화와 한민족의 화해, 평화적인 민족복합통일, 세계평화에 봉사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져왔다.

특히 이 기도회는 기타 단체에서 드리는 6.25상기기도회와는 달리 반공궐기대회의 틀을 벗어나 어머니의 심정으로 나라의 평화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왔다.



예성 유지재단 이사장 이·취임예배 드려

제10대 이사장에 이동석 목사 선출

예수교대한성경교회 9·10대 유지재단 이사장 이·취임식이 지난 6월 28일(금) 오전 11시 30분 서울 행촌동 총회본부 대강당에서 거행됐다.

유지재단 이사회의 주관하에 예배, 이임식, 취임식 순으로 진행된 이·취임식에서는 제9대 분정민 이사장에 이어 이동석 목사(능력교회)가 제10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유지재단은 정관에 의거하여 총회와 지교회 및 산하기관의 발전을 위하여 해당 모든 부동산 및 시설을 소유 관리하며,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한편, 이날 1부 예배에서는 송재성 목사(2대 이사장)가 기회를 선용하라(창 9:18-27)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2부 이임식에서 이어 3부 취임식에서는 취임기도(부총회장

김윤석 목사)와 신임 이사장의 취임사, 권면(4대 이사장 김재용 목사), 격려사(증경총회장 석광근 목사), 축사(증경총회장 송덕준 목사) 순으로 진행됐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대학원 2019 후기 모집

올해부터 목회학석사(M.Div.) 과정 후기모집 결정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대학원(이하 ACTS)이 7월 15일~19일 2019학년도 후기 신입생모집 원서접수를 진행한다.

선교를 위해 설립된 국내 유일의 교육기관인 ACTS는 선교지향적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대학이다. ACTS는 급변하는 대내외

적 상황 속에서도 아세아복음화와 세계선교를 지속적으로 표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금년 2019학년도 후기모집에서는 △일반대학원(신학석사, 문학석사) △신학대학원(목회학석사, 성경강해학) △선교대학원(일반/지

역선교학, 스포츠/미디어선교학) △교육대학원(상담, 교육과정, 다문화교육) △삼남대학원(기독교상담, 가족상담) △북지대학원(사회복지학석사) 등 총 6개 대학원에서 신입생을 선발한다. 특히, 신학대학원 목회학석사(MDiv) 과정은 2019학년도부터 후기모집이 결정되었으며, 교육과정 개편을 통하여 목회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이론과 실천신학을 집중적으로 교육함으로써 교회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을 배양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신학대학원 성경강해학(Th.M) 과정은 성경의 정확한 주해와 적용을 돕고, 성경본문에 충실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으로 많은 목회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ACTS 입학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31-770-7795~6, www.acts.ac.kr/grad)



굿네이버스-한국공항공사, 소음지역 취약계층 대상

‘두근두근 우리가족 첫 해외여행’ 바우처 프로그램 진행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회장 양진옥)가 한국공항공사(사장 손정완)와 함께 김포국제공항 소음대책지역 거주자 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두근두근 우리가족 첫 해외여행’ KAC 국제여행 바우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 상황으로 여행 기회가 부족한 취약계층 주민 총 61가구, 244명 내외에게 해외 가족여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국공항공사의 사회공헌 사업이다.

굿네이버스는 사업을 통해 서울(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경기(김포시, 광명시, 부천시), 인천(계양구) 등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

는 취약계층을 돕는다. 김포국제공항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가정, 고령자,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또한 별도의 사무국을 운영하여 지원 대상자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 과정에는 한국공항공사와 지자체가 함께하며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등의 단계를 통해 최종 집어 가족, 61가구를 선정한다.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된 가구에는 왕복항공, 관광, 호텔 식사 등이 포함된 바우처가 전국 지원되며, 여행은 올해 9-11월 사이에 중국(북경, 상해), 대만(타이베이), 일본(동경, 오사카) 중 1개 국가를 선택해 가면 된다. 이

번 사업은 해외여행 경험 횟수, 소득수준, 소음대책지역 거주기간 등이 심사기준으로 적용되며 가족 단위로 신청 가능하다. 참가를 원하는 가족은 굿네이버스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작성한 후 필수 서류와 함께 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황성주 굿네이버스 나눔마케팅본부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가족 간 해외여행의 경험이 없었던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문화체험 및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첫 해외여행인 만큼 이번 여행을 통해 잊지 못할 추억도 만들고 가족 간의 유대감 강화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에 따라

강원동지방회

강원동지방회(회장 진장길 목사)는 지난 7월 15일(월) 오전 11시 원주 총성교회에서 월례회를 갖고 교단과 지방회 발전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였다.

이날 예배는 최정희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지방회장 진장길 목사의 대표기도, 이창재 목사의 살전 5:16 말씀을 본문으로 한 '신앙과 생활'이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목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에 따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여 할



상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될 것을 강조하고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이어 월례회에서 지방회 각종 회무를 처리하고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성령으로 고정관념을 뛰어 넘어라’

전북서지방회

전북서지방회(회장 심해원 목사)는 지난 7월 8일(월) 장북순복음교회(담임 양희철 목사)에서 월례회를 갖고 지방회 회무를 처리하였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양희철 목사의 사회로 시작하여 서기 김해운 목사의 대표기도, 증경 지방회장 고현진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고목사는 민 13:25-33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성령으로 고정관념을 뛰어 넘어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전하였고, 이어 재무·회계 박운석 목사의 헌금기도, 지방회장 심해원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2부 월례회를 통해 각종 회무를 처리하였다.

월례회를 마친 후에는 장북순복음교회에

서 준비한 풍성한 애찬을 나누며 사랑의 교제를 갖고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뜻에 따라

대구경북지방회

대구경북지방회(회장 도사현 목사)는 지난 7월 11일(목) 오전 11시 안동성곡교회(담



임 김태진 목사)에서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예배는 총무 이항구 목사(주천양교회)의 사회로 시작하여 지방회 부회장 허만운 목사(순복음성산교회)의 기도, 이항구 목사의 성경봉독, 증경 지방회장 강태

진 목사(안동성곡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강목사는 마 7:13-14 말씀을 본문으로 '아버지의 뜻'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은혜가 사라져가고 믿음이 식어져가는 이 시대에 외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사역이 아닌,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사역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좁은 길을 나아가야 한다"라며 그 길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라고 전하였다.

설교 후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위해 회계 정인철 목사의 헌금기도가 있었고, 총회장 신재영 목사(새김전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예배 후 안동성곡교회(담임 김태진 목사)에서 준비한 쿠푸쿠 뷔페로 이동해 맛있는 식사를 함께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화합하고 서로 사랑하는 지방회 다짐

충서지방회

충서지방회(회장 안흥규 목사)는 지난 7



월 9일(화) 보령시 천북면 숙굴길 22에 위치한 송죽교회(담임 이인복 목사)에서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장 안흥규 목사

(한사랑교회)의 사회로 시작하여 이종환 목사(양문교회)의 대표기도, 지방회 총무 이인복 목사(송죽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목사는 마 1:1-17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혼합한 세상일지라도 오직 말씀 중심의 성경관을 가지고 묵회하고, 진리 외에는 타협하지 않는 자세를 갖춘 목회자들이 될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증경총회장 진동용 목사(새소망교회)의 헌금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월례회를 통해 지방회 각종 임무를 처리한 후에는 좌담회를 갖고 지난 한 해 동안 힘들었던 문제들을 토론하고, 진동용 목사의 제안으로 화합하는 지방회, 사랑하는 지방회원들이 되기 위하여 합심기도하고 월례회를 마쳤다.

찾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목회

대전지방회

대전지방회(회장 정운기 목사)는 지난 7월 8일(월) 오전 10시 30분 논산백영교회(담임 박용성 목사)에서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예배는 총무 이만규 목사(좋은나무교회)의 사회로 석인권 목사(하늘사랑교회)의 대표기도, 증경 지방회장 엄기철 목사(은혜와찬양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엄목사는 뱀전 4:7 말씀을 본문으로 '기도하면서 사세요'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찾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목회"를 강조하며, "기도하면 들으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어떤 순간에도 나를 견고하게 붙드시는 분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 뿐임을 믿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



한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매달리는 목회자가 될 것"을 당부하였다.

설교 후 합심기도와 지방회장 정운기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이어서 지방회

장 정운기 목사의 사회로 제68차 총회와 실행위원회 소식을 전하고, 8월 행사에 대해 월례 회무를 진행한 후, 오후에는 영화감상을 하고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말씀따라 사는 후회없는 삶’ 강조

인천지방회

인천지방회(회장 김경진 목사)는 지난 7월 8일(월) 오전 11시 명성순복음교회(담임 김경진 목사)에서 월례회를 갖고 지방회 각종 임무를 처리하고, 교단과 지방회 발전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총무 김진원 목사(예수이름교회)의 사회로 시작하여 서기 손인환 목사(새벽교회)의 대표기도, 지방회장 김경진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목사는 고후 7:10 말씀을 본문으로 '후회없는 삶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후회없는 삶을 살려면 첫째, 진실해야 되고 둘째, 근면한 생활을 해야 하고 셋째, 인내하는 삶이 되어야 하고 넷째, 긍정적인 사람이 삶에 있어서 후회를 하지 않는다"라며 "인생의 성공책도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으로 논하지 말고 후회없이 산 것으로 논해



야 한다"고 전하였다.

이어 회계 김려한 목사의 헌금기도와 필리핀 김성호 선교사의 선교보고, 증경 지방회장 반인홍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기도회는 김진원 목사의 인도로 첫

지방회의 발전을 위해 셋째, 성령 충만한 사역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3부에서는 지방회모임 토론회 및 회의 안건을 은혜롭게 처리하고 마쳤다. 이어 명성순복음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식사와 다과를 나누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승리하는교회’ 창립감사예배

충북지방회

충북지방회(회장 김경준 목사·순복음후영교회)는 지난 7월 6일(토) 오전 11시 승리하는교회(담임 최은성 목사) 창립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지방회 총무 김용 목사(증평

새희망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지방회 부회장 신병설 목사(청주주사랑교회)의 기도, 서기 민병훈 목사(예광순복음교회)의 성경봉독, 이어 증경 지방회장 윤경현 목사(보은순복음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윤목사는 욥 8:7 말씀을 본문으로 '심히 창대하리라'라는 제목으로 "겨자씨는 씨앗 중에 가장 작지만 땅에 심어 지게 되어 나중

에는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의 동자가 되고 잎터가 되기도 한다.

교회개혁도 시작해서 한결을, 한결을 과정을 겪어 나감다 보면 겨자씨가 자라 큰 나무가 되듯이 부흥되게 되는 것이다"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는 교회가 이곳에 세워졌으니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고 도전하는 정신을 가지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 심히 창대하게 될 것"이라고 축원하였다.

이어 지방회장 김경준 목사의 창립 선포, 지방회 재무 정재광 목사(생명샘순복음교회)의 헌금기도, 박미선 자매(승리하는교회)의 특송, 증경장 이문근 목사(이복순복음교회)의 권면, 김정수 목사(부강순복음교회), 최동순 목사(삼산순복음교회)의 축사가 있었으며, 최은성 목사의 인사 및 광고에 이어, 이동수 목사(한희순복음교회)의 축도로 창립 예배를 마치고 승리하는 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오찬을 함께 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눴다.



바울과 같은 복된 사역자 다짐

충북지방회

충북지방회(회장 김경준 목사)는 지난 7월 15일(월) 오전 11시 내수평강교회(담임 유병일 목사)에서 7월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김윤배 목사(중앙침교회)의 사회로 시작하여 조재호 목사(장대

교회)의 대표기도, 특송으로 이문근 목사(이복순복음교회)의 색소폰 연주, 유병일 목사(내수평강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유목사는 딤후 4:1-8 말씀을 본문으로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바울은 디모데에게 첫째, 모든 일에 근신하라고 전했다. 목회자도 오래 사

역을 하다면 초심을 잃어버리고 얼마든지 세속에 물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거짓 신자들처럼 이원론적 사역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라며 "사역을 위해 고난을 받고, 전도를 하며 직무를 다해야 한다. 지방회 모든 목회자들도 바울처럼 복된 사역자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조숙희 전도사(순복음주름교회)의 헌금기도와 이문근 목사(이복순복음교회)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 월례회는 지방회 부회장 신병설 목사의 진행으로 재무 정재광 목사, 회계 조재호 목사, 서기 민병훈 목사, 총무 김용 목사의 보고와 기타 체육위원회 보고와 안건을 처리한 후 교단의 발전과 지방회 산하 교회의 부흥을 위해 통성으로 기도 한 다음 최동순 목사의 기도로 7월 월례회를 마쳤다.

회의를 마친 참석자들은 정소를 옮겨 내수평강교회에서 준비한 오찬을 나누며 교제의 시간을 기점으로 모든 일정을 은혜 가운데 모두 마쳤다.



생명의 말씀



황용연 목사

· 경남지방회 중경회장
· 은혜와평강교회 담임

사사기 7장은 기드온의 사역 중에서 가장 화려한 승리의 장면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전투에 나선 기드온이 불과 300명이라는 아주 작은 군사로 무려 135,000명이나 되는 미디안의 군대를 진멸시키는 기적적인 전쟁 기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단순한 승리의 모습뿐 아니라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승리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군사력이 막강하고 숫자적으로 우세하고 전술전략이 뛰어난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관적인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드온의 300 용사를 통해서 오늘날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 우리의 자세와 그

자격됨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떠한 자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1. 겸손한 자가 승리 할 수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 겸손한 기드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좇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미디안과 그 동맹국의 군사들의 수는 135,000명인데 비해서 이스라엘의 수는 32,000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4배 이상이나 되는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군사의 숫자로 밀릴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많다고 하십니다. 기드온의 입장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궁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삿 7:2) 많은 병사들을 거느리고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분명히 기드온은 자신의 실력으로 이긴 것으로 착각하여 자신의 실력을 과대평가하고 백성들도 승리감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승리의 요인을 하나님의 능력과 힘에서 찾지 않고 인간인 자신들의 공으로 돌려 교만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한 자가 승리합니다. 지면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높은 산에는 물이 고이지 않습니다. 물은 낮은 곳에 고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한 곳에는 결코 고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2. 준비된 자가 승리 합니다.

우리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남아있는 일만병을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먹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6-7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먹고 있을 때 이들의 물 먹는 태도를 보고 세 부류로 나누셨습니다. 첫 번째는 개가 핏을 핥고 그 혀로 물을 핥는 자이며, 두 번째는 부엌을 끓고 물을 마시는 자요, 세 번째는 물을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로 구분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의 부류의 사람 300명만 선발하도록 하셨습니다. 개 같이 물을 핥는 자나 부엌을 끓고 물을 마시는 사람은 경계 태세를 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6절)는 주위를 경계하는 조심성과 군인 정신이 투철한 자이며 언제 어떤 위험이 닥치더라도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

영적 군사의 자격

(삿 7:2-18)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사람이 많다고 할지라도 준비되지 않는다면 그 많은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왕하 4:3 이하에 보면 엘리사가 한 생도의 집에만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얼마나 가난하고 빚을 지었는지 가정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빚을 못 갚는다고 종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무엇이라고 했을까? 왕하 4:3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그리고 가져온 그릇에 “따지마 남은 기름을 부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름을 붓는 대로 병이 치고 넘칩니다. 언제까지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준비된 그릇이 없을 때까지.

우리 교회, 가정, 나 자신, 우리 모두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3. 순종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기드온은 비밀스럽게 햇불 작전(19-23절)을 수립하였습니다. 기드온이 자신의 용사 300명을 100명씩 세대로 나눈 것도 보다 더 비밀을 잘 유지하고 기습 공격을 잘 할 수 있기 위한 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준비 시킨 기드온 군대의 주 무기는 나팔과 항아리 그리고 햇불입니다.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햇불을 감추고 진격하는 전략입니다.

이 세 가지는 도저히 전쟁 무기로는 어울리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일단 기드온은 본문 17절에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 기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삿 7:17)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즉, 햇불 작전은 한 두 사람이라도 실수를 하게 되면 실패하게 되기 때문에 기드온은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작전과 신호에 따라서만 움직이도록 했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총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주의 군사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영적인 군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순종과 겸손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반제와 다른 제사들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삼상 15:22) 일상불만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시어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동 정

CBS 신임 이사장 손달익 목사



손달익 목사

· CBS 재단이사회

· 서울 목동 CBS 본사

· 에서 열린 6월 정기

· 이사회에서 손달익

· 목사를 제30대 이사

· 장으로 선출했다. 손달익 신임 이사장

· 임기는 7월 4일부터 2년이다. 손달익 신

· 임 이사장은 서울 은평구 서문교회 담

· 임목사로 장신대 평신도대학원장이며,

· 예장통합 총회장을 지냈다.

· 홀트아동복지회

· 흥현국 감사가 지난

· 7월 1일(월)故 말리

· 홀트 이사장에 이어

· 제19대 이사장으로

· 취임했다. 신임 흥현

· 국 이사장은 “홀트아동복지회와 16년

· 동안 감시직을 맡아 활동하며 함께 해

· 왔다.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한 설립자

· 의 뜻을 입직원, 후원자와 함께 잘 계승

·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소감을

· 밝혔다.

· ‘CBMC 한국대회’ 내달 개막

· 한국기독교실업인회

· (CBMC·중앙회장 이

· 승을)는 오는 8월 13~

· 15일 경주 화백컨벤

· 셉터에서 ‘제46차

· CB MC 한국대회’(준

· 비위원장 원종식)를 개최한다. 이 대회

· 는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사

· 62:10)’라는 주제로 다문화 미션 페스

· 티벌을 열고 꿈과 비전, 기도를 나눌 예

· 정이다.

· 한남대 국제화 열기

· 한남대(총장 이덕

· 훈)가 여름방학 기간

· 에 해외 학생을 대상

· 으로 다양한 캠프를

· 개최, 눈길을 끌고 있

· 다. 한남대는 지난 7

· 월 24일 이 학교 무아아트홀에서 미국

· 자매대학 학생을 초청해 한국문화연수

·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3~4주 일정으로

·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에 미국의 자매대

· 학 2개교 학생 14명이 참가했다.

논평

KBS1의 시사기획 ‘창’은 교회를 부정하려는 또 다른 시도일 뿐

KBS1이 지난 7월 9일 시사기획 ‘창’을 통해서 교회 내의 성폭력 문제를 다뤘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교회 내 성폭력이나 성추행 등은 근절되어야 하고, 사라져야 한다. 한국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며 또한 고쳐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가 9일 방송한 내용을 보면, 모두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전에 있었던 사건을 다시 들먹거리고 거기에 추가하여 방송하고 있다. 그러면서 교단이 온정주의 때문에 성적인 문제를 가진 목회자들에게 ‘면직’과 같은 중징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부각시킨다.

그러나 이날 방송에서도 나왔지만, 한국 교계가 이런 목회자에 대하여 모두 솥방망이 처벌만 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도, 만약에 이런 징계의 경미 문제로 교회 안에서 극히 일부에 의한, 성문제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라면, 교회와 교단들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그러나 이날 방송한 KBS는 어떻게 한국 교회를 위하여 방송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끊임없이 한국교회를 비난해 온 연정선상에서, 과거의 지나간 사건까지 포함하여 한국교회를 비난하려는 목적으로 방송하고 있는 것이다.

한 마디로 공영방송인 KBS는 한국교회 비난의 사명(?)을 받은 듯하다. 사실인가? 본 한국교회언론회는 지난 2018년 1월 1일부터 올해 7월 9일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KBS를 포함하여 각 방송들이 한국교회와 관련된 내용을 방송한 것들을 찾아보았다. 대상 방송은 KBS, MBC, SBS, YTN,

JTBC 등 5개사이다. 이들이 이 기간 동안 기독교에 대하여 방송한 것은 총 141건이다. 그중에 부정적인 내용이 121건, 긍정적 인 것이 3건, 나머지 17건은 사실적인 보도이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내용이 85.8%이며, 사실보도는 12.0%이다. 반면에 긍정적 보도는 2.1%를 차지한다.

아찌 한국교회와 한국 사회에서 부정적인 활동만 하는 종교인가? 이 기간 동안 불교에 대한 보도는 15건, 천주교에 대한 보도는 17건이다. 그것도 불교에 대한 사실 보도는 13건이며, 천주교에 대한 보도는 12건이다. 즉 기독교를 뺀 태종교에 대한 보도는 대부분 사실 보도 위주로 하고 있다.

기독교에 대하여 가장 부정적인 보도를 하는 언론은 JTBC로 100%로 파악된다. 다음이 YTN으로 90.4%를 차지한다. 그리고

MBC가 84.6%이며, KBS는 84.3%로 거의 비슷하다. 거의 모든 언론들이 한국교회를 공격하기 위하여 혈안이 된 형국이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보도에 오른 인물은 전광훈 목사로 56회에 달한다. 전광훈 목사가 지난 6월 5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는데, 이에 대하여 언론들은 집중적인 부정 보도거리로 삼은 것이다.

왜 그럴까? 이것을 종교계 소식으로 보았다면, 이 정도로 방송들이 부정적 보도에 많은 영상과 횡수를 할애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전 목사를 자신들과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인사로 보고, 그에 대한 부정적 보도에 치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주요 방송언론들은 한국교회를 비난하고 공격하는데 아무런 주저함이나 망설임이 없다. 어떻게 공영방송인 KBS가

저도 편협되고, 편향되고, 편파적인 보도에 치중하는가?

어느 방송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KBS가 절대 권력은 아부하는 모습으로 일관되다시피 하고, 기독교에 대해서는 쌍심지를 켜고, 비난 일색으로 방송에 앞장서는가?

최근에 KBS공영노조가 KBS의 보도 태도에 대하여 성명한 것을 보면, KBS는 청와대 홍보실인가? 라고 묻고 있다. 또 얼마 전 대통령의 G20 회의 불참에 변명보도를 하고 있다고 질타한다.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여 고개를 들 수 없다고 KBS 자체에서도 평가한다.

KBS는 공영방송으로 현 정권에 대한 실정과 문제점에 대하여 더비중을 두고 보도해야 한다.

http://agpgs.aogk.org

2019학년도

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표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 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정치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1. 지원 자격

학 과	과 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석사(M.M./ Master of Ministry)	2년(4학기)	- 본 교단의 소속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의 신학교 졸업자(예정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자

2.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장양식 1부
-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추천서(소장양식) 1부
- 반영합판 사진 2매
-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목회자 소속 자격 증명서 1부(해당자)

3. 전형일정 및 접수 방법

- 원서교부 : 수시 교부
- 원서교부처 : 본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http://agpgs.aogk.org)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접수방법 : E-mail 혹은 우편이나 방문접수(luvjx7@daum.net)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전 형 료 : 50,000원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01-04-214788(총회신학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인정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교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본 교단 소속 목사 중 목회학 석사(M.M)학위를 취득코자하는 자에게는 50% 장학금 혜택을 부여한다.
-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오전 9:30분~ 오후 4:40분 까지 진행된다.
-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자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

언론회, 한국교회가 나아갈 모습과 역할을 위한 시국선언(교회와 정치)논란에 대한 토론회 개최

7월 2일 한국교회언론회는 최근 한국교회 내에서 벌어지는 정치와 종교, 종교와 정치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때 마련, 열린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유만석 목사(분회 대표)의 인사말에 이어, 임성택 목사(그리스도대학 전 총장)의 발제와 토론에는 김명혁 목사(한국복음주의협의회 명예 회장), 박종화 목사(경동교회 원로), 박종언 목사(한정총 사회발전인권위원장), 그리고 이성민 교수(감신대), 이호선 교수(국민대 법학과)가 토론에 나섰다. 사회는 이억주 목사(분회 공동대표 및 대변인)가 맡았다.

인사말에서 유만석 대표는 "한국교회에 열린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교계의 다양한 의견을 가진 분들을 초청하여 '시국선언(교회와 정치)' 논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통합하고 소통하는 기회로 삼고, 한국교회가 함께 나가야 할 모습과 역할에 대하여 진지한 토론을 하고자 한다. 분회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한국교회계의 논란들에 대하여 토론회를 계속 개최하려고 한다"고 하였다.

임성택 목사는 발제에서, '정교분리'는 국가가 국민의 세속적, 경제적 생활에만 관여할 수 있고, 내면적, 신앙적 생활은 개인의 신앙과 양심에 맡기고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는 것인데,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정교분리' 개념은 교회의 정치 간섭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려는 것으로, 오류와 혼란이 있다고 정리하였다.

또 정교분리의 수준 높은 교회 정치사상을 펼칠 수 있고, 스스로 세속정치의 일파가 되어 상대를 정적 개념을 가지고 복음과 교회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것을 용인하며, 보수이기 때문에 혹은 진보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편들거나 혹은 비난하며, 성경적이지도 않은 주장을 성경과 신학을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면서 교회는 정치에 대하여 선지자적 역할



을 감당해야 하며, 정권이 기독교를 훼손하려고 하면 교회가 이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이호선 교수는 '정교분리와 교회 정치투쟁의 담위성'을 역설했는데, 종교와 국가 간의 관계에는 4가지 모델이 있는데, '국교를 인정하는 모델' 등이 있다. 여기에는 북유럽의 여러 나라가 해당되며, '종간적 분리 모델'이 있는데, 법적 한계 내에서 종교의 자유와 자결권을 인정하는 나라로 독일, 스코틀랜드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분리 모델'이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국교를 금지하는 나라로, 미국, 프랑스 등이 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적대적 분리'로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는 종교의 말살을 가져온다고 하였다.

특히 북한은 경우, 김일성 저작집에 보면 '종교는 일종의 미신이다' 우리는 그러한 종교인들을 데리고 공산주의 사회로 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천주교에서 집사 이상의 간부들을 처단했다'고 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정교분리 하에서 정치 비판 금지를 포함시키는 것은 반헌법적이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서 종교를 일반 결사체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하였다. 즉 다른 모든 국민의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되는 것이다.

이어서 김명혁 목사는 교회와 정치의 관계가 중요하지만, 매우 복잡하다고 운을 떼고, 전 모 목사의

지나친 정치 발언이 문제가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정치나 교회는 완전하지 못한 것인데,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면 정치에도 감동이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성경 마태복음 5장에서처럼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착한 행실을 보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였다.

이성민 교수는 교회는 서로 사랑하여, 주님의 제자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내부에 대한 반성과 통찰이 먼저 필요하며, 교계에 분리와 분열을 일삼는 선배/원로들은 회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다름의 집에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이라며, 한국교회가 서로를 위해 용서와 연합이 실질적으로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이어서 박종화 목사는 한국은 다종교 사회이기 때문에 정교분리가 필요하며, 누구든 정치에 개입은 가능하지만 교회가 공적 단체로서, 정치에 예측되는 것은 교회 사명이 끝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 가운데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을 정치가로 세우야 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교회는 기독교당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또 이호선 교수가 말한, 4가지 종교와 국가 간 모델 가운데, 그 모델 속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발전하는가를 연구하여, 한국형정교분리 모습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박종언 목사는 지금 정부의 정책들이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왔던 효율적인 체제들을 다 바꾸고 무너뜨리는 것 같은 우려를 해서, 전 모 목사는 한국기독교를 대표해서 정부를 꾸짖는 것이라기보다는, 정치를 잘 아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라에 가는 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이라고 보았다.

토론은 질의응답까지 2시간가량 이어졌으나, 사회를 맡은 이억주 목사의 제안으로, 토론자들과 참석자들은 네 가지를 채택하기로 하고 마쳤다. 첫째는 정교분리원칙을 천명한다. 둘째는 시국선언은 나라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이고, 셋째는 여러 절차가 있는데 이를 뛰어넘는 대통령 하야 발언은 과하다. 넷째는 시국선언의 적절성은 국민들이 각자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등이다.

이날 토론회는 초미의 관심사였기에, 많은 언론들의 취재와 각계의 사람들이 참석하여 열린 분위기 가운데 진행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동성에 동성혼을 옹호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 임명을 즉각 취소하라!!

300개 단체의 연합으로 구성된 [동성애동성혼반대 국민연합(동반연)]과 전국 34개 대학교 3,239명이 참여하고 있는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은 문재인 대통령이 동성에 동성혼을 옹호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의 임명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7월 9일 발표하였다.

성명서

문재인 대통령은, 현행 헌법을 무시하고 동성에 동성혼을 옹호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의 임명을 즉각 취소하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2019년 7월 7일 동성에 동성혼 합법화 문제와 군대 내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군형법 제92조6' 폐지 주장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는 누구보다도 법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할 검찰총장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혼인으로 인정하는 현행 헌법과 법률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동반연과 동반교연은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윤석열 후보의 임명을 즉각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비록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라 하더라도 사람의 인권은 보호받아야 하지만,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는 부도덕한 행위조차 보호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그들의 부도덕한 행위를 비판한다고 해서 차별금지법을 통해 처벌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동성애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은 과학적 관점

에서 더 이상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또 우리나라 헌법 재판소와 대법원이 4번이나 판결한 것처럼 동성애는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이다. 특히 동성애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들의 에이즈 감염이 급증하고 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만을 혼인으로 인정하는 현행 헌법과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와 동성혼 합법화 여부를 묻는 질문과, 절대 다수의 젊은 남성들이 모여 있는 상명하복의 군대내 항문성교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 6'의 폐지를 묻는 질문에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답변한 것에 대하여 심각히 우려한다.

왜냐하면, 차별금지라는 의미에는 정상으로 간주해야 하는 것과, 정상으로 간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별하는 것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결국 성소수자 차별금지 차별금지법 제정, 동성에 동성혼 합법화, 항문성교를 처벌하는 군형법 폐지 등을 합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윤석열 후보의 발언은 교묘하게 차별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동성에 동성혼 합법화를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최근 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하여 옹호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사로 임명되는 가운데, 검찰총장 후보조차 동성애와 동성혼을 옹호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에 동성애, 특히 군대 내 동성애를 반대한 것을 기억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 임명을 즉각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9. 7. 9

동성애동성혼반대 국민연합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

왜곡된 혐오차별과 인권기본법의 문제점과 폐해의 학술포럼

국회의원 정갑윤 의원과 혐오차별로 포장된 동성애독재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7월 3일(수)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왜곡된 혐오차별과 인권기본법의 문제점과 폐해'를 주제로 학술포럼을 갖고,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혐오차별대응특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동성애 반대를 혐오차별로 처벌하려는 것과, 법무부가 2019년 발의 하려고 하는 인권기본법의 문제점과 폐해에 대하여 뜨거운 토론을 가졌다.

이날 학술포럼에는 최대권 교수(서울대 법대 명예교수, 헌법학자 인권기본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윤선필 교수(충남대 법대 학장, 헌법학)는 동성애와 차별금지에 대해서,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이이앤에스 대표)는 동성애 독재 법리를 가진 혐오표현 규제론의 문제점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또 상명대 공공안전학부 김용환 교수,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진 교수,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지영준 변호사, 자유와인권연구소 고영일 변호사가 각각 토론에 참여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 2월 20일 동성애 행위를 반대하는 것 등을 혐오차별로 규정하고 이를 적극 대응하기 위해 '혐오차별대응특별추진위원회' (이하 '혐오차별특위')를 구성하였다. 또 법무부는 성평등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된 제3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2018년 3월 발표하여, 정부의 모든 부처의 정책이 따르도록 권고하였다. NAP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양성평등 이념의 현행헌법과 법률을 정면 도전하는 성평등 정책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였다. 법무부는 NAP에 대한 법적 근거를 구축하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을 더욱 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인권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최대권 교수는 우리나라는 영국처럼 불문헌법 나라가 아니고, 성문 헌법전의 인권목적이 상세하지 아니한 프랑스와 다르며, 성문 헌법전의 인권목적이 매우 미약한 미국과는 다르게 헌법에 상세한 인권목적을 갖추고 있어 인권기본법 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였다.

홈페이지: www.agtc.or.kr



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19학년도

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신학교는 신실한 사명자들을 성경적 신앙의 바탕 위에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거룩한 성품과 오순절 신학을 겸비하여 이 시대가 요청하는 사명자를 배출함으로 한국과 세계복음화에 헌신할 영적 지도자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교육목표

- ① 성경적 오순절 신학의 연구와 정립
- ② 거룩한 성품과 성령의 능력이 겸비된 일꾼 양성
- ③ 건강한 교회를 세울 참신한 지도자 양성

● 교훈

- 자질을 갖춘 소명자
- 진리충만 은혜충만한 소명자
- 복음전파에 목숨을 건 소명자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4년8학기 (140 학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 고등학교 졸업 학력 감정고시에 합격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졸 이상의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은 자
신학과 (편입생)		• 4년제 대학졸업자 : 3학년에 편입 • 전문대 졸업자 : 2학년에 편입 •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할 경우 해당 학년 편입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② 담임목사 추천서
- ③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④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⑤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자)
- ⑥ 건강진단서(HIV포함)
- ⑦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⑧ 가족관계증명서
- ⑨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일정 및 접수방법

- ① 원서교부 : 수시 교부
- ②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③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총회신학교 교학처)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 형 료 : 30,000 원(계좌로 입금)
-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01-04-214788(총회신학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본 교단 전도사 임명자격을 부여한다.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을 부여한다.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신학교 교학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

ASSEMBLIES OF GOD

기도로 준비하는 목회자 다짐

경기남지방회

경기남지방회(회장 정석현 목사)는 지난 7월 15일(월) 열린순복음교회(담임 김미연 목사)에서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예배는 이광우 목사의 찬양인도에 이어 서경오 목사(복있는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김효신 목사(천양교회)의 기도과 성백달 목사(궁촌중앙교회)의 성경봉독, 사모 중찬단의 은혜로운 특송 후에 지방회장 정석현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정 목사는 전 10:10 말씀을 본문으로 '우매자와 지혜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하여 "무단 연장으로 일을 하면 수고의 결과가 없고 헌만 들 뿐이지만 낱을 갈아 사용하면 일도 쉽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라며 "오늘 우리의 심령이 무디어져 있다면 그만큼 주의 일에도 힘들고 결과가 없으므로, 아홉이 압박감에서 천사와 씨름을 한 것처럼 강한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갈아서 항상 충만하게 준비된 자가 되어, 더 열심을 가지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목회자가 될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배영철 목사(양산순복음교회)의 헌금기도, 김미연 목사(열린순복음교회)의 광

고 후에 최영민 목사(신행제일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 7월 월례회를 은혜롭게 마치고 8월 수련회에 관한 의견을 나눈 후, 열린순복음교회에서 준비한 오찬을 나눈 후에 각자의 목양지로 향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경기북지방회

경기북지방회(회장 이경진 목사)는 지난 7월 9일(화) 오전 10시 30분 향기로운교회(담임 육준수 목사)에서 월례회를 갖고 각종 회무를 처리하였다.

이날 1부 예배는 박용진 전도사와 이상숙 전도사의 찬양인도 후 지방회 서기 육준수 목사의 사회로 시작해 재무 강인덕 목사의 대표기도, 지방회 부회장 오세준 목사의 막 4:35-41 말씀을 본문으로 한 '풍랑이 일어난다면'이라는 제목의 설교, 예정회 목사의 헌금기도, 지방회장 이경진 목사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이어 2부 월례회는 지방회장 이경진 목사의 사회로 서기 육준수 목사의 회원점명과 총무 서기보고, 재무 강인덕 목사의 재무보고, 회계 육준수 목사의 회계보고 후 기타 안건을 토의하고 증경회장 김장수 목사의 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하나님이 주신 신비의 열매 아로니아



“아로니아는 장미과에 속하는 다년생 관목으로 ‘블랙초크베리’라고 불립니다. 가혹하고 척박한 생육환경에도 강력한 생명력을 자랑하는 아로니아는 중세 유럽 왕족과 귀족들이 질병예방과 치료의 만병통치약으로 사용하면서 ‘왕의 열매’ (King's Berry)라는 별명으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아로니아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과일 중에서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가장 많이 함유된 신비의 열매로서 현대인의 신체의 여러 질병과 노화를 예방하는 건강보조식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탁월한 성분

아로니아는 칼륨과 같은 다양한 유기 미네랄과 다양한 비타민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로니아는 세포가 노화되면서 발생하는 유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노화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항암효과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로니아 속에는 안토시아닌은 포도의 79배, 크랜베리의 11배, 블루베리의 약 4배에 이르는 양이 포함되어 있고, 카테킨, 레스베라트롤, 퀘르세틴 등의 폴리페놀도 포도의 11배, 크랜베리의 11배, 블루베리의 5배 이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로니아 생과에 포함된 영양성분



효능

- 강력한 항산화 작용 : 유해 활성산소 제거
- 항당뇨 작용 : 혈당을 억제하고 인슐린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효과
- 항암, 항염, 항괴양 (위 보호 효과) : 악성세포의 성장을 막고 세포 자살을 유도
- 소염, 항균살균, 항알러지 작용 : 관절염 예방 및 치료, 알러지 증상 개선
- 시력보호 : 로돕신이라는 색소의 재합성을 촉진시켜 눈의 피로, 시력을 개선
- 피부 노화방지 : 활성산소를 중화해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피부 손상 노화 방지 및 보호
- 심혈관계 질환 예방 : 혈전 발생 억제, 콜레스테롤 억제, 고혈압 예방, 심장질환 및 뇌졸중 예방 및 치료에 효과적, 기억력 개선 효능
- 면역력 강화

섭취 방법

아로니아는 단맛과 신맛 그리고 떫은맛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그냥 먹거나 우유나 요구르트 또는 과일주스와 함께 믹서기로 갈아서 맛있게 마실 수 있습니다. 또 썬 또는 샐러드로 먹을 수 있고 건강에 더욱 좋은 효소 발효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아로니아는 100세 시대에 접어들어 한국인의 건강을 책임질 최고의 과일입니다. 전국에 있는 교회의 교역자 및 성도 여러분, 무병약으로 재배한 좋은 품질의 아로니아를 믿음의 가족들의 건강에 이바지하고자 하여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드리고자 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체국 504076-02-072136 (예금주 김갑신)

구입문의 010-3621-4853

한돌 아로니아 농장

전라남도 여수시 상암동 8길 38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천년초의 효능

1)폐놀성물질

- 1 손상된 신체조직구조(각종 염증을 다스림)
- 2 암세포 성장억제, 각종 암의 예방(쥐실험)

(*고려대학교 손용석 교수님 압축으로 세계특허)

2)폴리보노이드

-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 2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예방(원광대연구논문)
-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급성간염에 탁월(경희대연구논문)
- 4 뇌혈관계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학계보고)

3)타식폴린 :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십견, 류마티스관절염, 강직 척추염(줄기를 붙여도 탁월) 전북대연구논문

4)호흡기, 위 : 위염, 위궤양에 탁월 서울대연구논문

5)사포닌 : 면역력 증가

6)칼슘 : 홍화씨의 24배, 멸치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3배, 딸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호서대연구논문)

(*천년초를 복용하면 뼈가 새로 만들어 진다는 엄청난 연구논문 발표됨)

7)식이섬유 : 타식물(과일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물기(호서대연구논문)

8)불포화 지방산 : 고등어의 3배 오메가3, 6함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9)비타민C : 알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 (전북대연구논문)



- 10)기타성분 : 단백질, 탄수화물, 화분,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이 연구를 통해 발표됨.
- 11)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입증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유방종기,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찢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나.



목포시내산교회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계좌번호 기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제68차 총회 제2회 실행위원회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본 교단 제68차 총회 제2회 실행위원회를 교단 헌법 제8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1) 일 시 : 2019년 8월 26일(월) 오후 1시 (12시부터 점심식사)
- 2) 장 소 : 총회본부(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TEL. 02-2675-5181~3)

*점심식사 등 준비관거로 참석여부를 8월 20일(화)까지 총회본부(02-2675-5181~3)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20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총 회 장 목사 신 재 영
총 무 목사 이 경 진

홈페이지: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19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의를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 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 ③ 전형료 : 20,000 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홈페이지 :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19학년도 제1학차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 원훈

- 말씀충만, 성령충만.
- 목양일념.
-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전파.

1. 모집학과 및 지원 자격

학 과	과 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 (M.M/Master of Ministry)	3학차	● 본 교단 소속의 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 신학교 졸업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응시 허락을 받은 자

2. 전형 방법

서류 전형 및 면접

3. 전형일정

- ① 원서 교 부 : 2019년 6월 17일(월) ~ 2019년 8월 28일(수)
- ② 원서교부처 : 본 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
- ③ 원서 접 수 : 2019년 7월 8일(월) ~ 2019년 8월 29일(목)
- ④ 합격자발표 및 합격자 등록 기간 : 개별통보

4. 전형료

- ① 전형료 : 30,000원
-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5.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추천서(소정양식) 1부
- 반명함판 사진 1매
-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6. 특전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 인정) 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홈페이지에 업로드 됨.
-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대학원 홈페이지 www.ucts.org 에서 출력 작성 후 E-Mail, 혹은 우편으로 접수 가능.

7. 문의처 및 주소

- 문의처 : 02)2678-5181 FAX: 02-2632-0691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양평동5가 90-3) 사이버목회대학원 교학처 (우)07205
- 홈페이지 : www.ucts.org,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2019년 6월 17일(월) ~ 2019년 8월 29일(목)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목양
포커스

박동호 목사 // 한보총 대표회장

기독인 서명 캠페인

“나는 자유와 복음의 능력에 의하여 북한이 변화되고

우리나라가 통일될 것을 믿는다”

“온갖 사이비 종교와 이단들이 선택한 교인들을 미혹하여 멸망으로 끌고 가려 하고 있다. 또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자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역사하고 있는 현실에서 얼마나 시대와 같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과를 찾고 있다”

「나의 믿음과 결의」 서명 캠페인을 추진 중인 박동호 목사는 한국교회와 사회를 살릴 크리스천들을 찾고 있다.

박 목사는 “성경에 이르기를 (왕상 19:18)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칠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욥 11:4)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너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칠천 명을 남겨 두었다고 하셨다”며, “충청남도 의회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조례로 통과시키려고 한 것을 기독교가 막았다. 그때 그 일에 앞장섰던 목회자들을 보고 참된 크리스천들이 무뎠어 한다는 의식이 생겼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동 결의문을 읽는 사도신경을 믿는다. 나는 예수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원주이심을 믿는다. 스

나는 66권의 성경을 절대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나는 하나님께서 인류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심을 믿는다. 나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사명을 수행하게 하실 것을 믿는다. 나는 교회가 국가와 사회에 대한 시대적 책임이 있음을 믿는다. 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건립되었음을 믿는다. 나는 한국교회가 세계선교 특히 아시아선교사명이 있음을 믿는다. 나는 자유와 복음의 능력에 의하여 북한이 변화되고 우리나라가 통일될 것을 믿는다. 나는 종교다원주의, 종교통합을 배격한다. 나는 자유민주주의의 체제,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수호를 적극 지지한다. 나는 성경적 신앙에 배치되는 제도와 법률 제정에 반대한다 등이다.

박 목사는 각 항목 취지에 대해 “예루살렘에 속한 사람, WCC를 지지하는 사람들 특징이 하나님의 절대성을 믿지 않는다. 예수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한다. 그들은 절대 사인을 안 할 것이다”며, “우리나라는 동서남북 둘러싸고 강한 나라들이 에워싸고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의지할 곳은 하늘뿐이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고 말했다.

또 “WCC와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예수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한다. 그들은 이 결의문에 서명하지 못할 것이다”라며, “반대로 WCC와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기쁘게 참여하여 결의에 서명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렇게 모인 사람들의 생각이 이 나라의 정치와 무너진 도덕과 윤리를 바로 세우고, 차별금지법 같은 기독교에 반하는 법과 동성애를 조장하는 행위 등을 막을 수 있다”며, “지금 상태로선 그러한 반인륜적인 범죄를 막을 힘이 없다. 이러한 악법을 막기 위해 목회자들이 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목사는 “초교파적인 기독교의 힘을 모아서 한 목소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 서명 캠페인(http://faithaccusation.kr)을 통해 사회로부터 공격을 받는 기독교를 방어하기 위한 힘을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또 “나의 믿음과 결의에 참여하여 주님께 나의 참되고 진실한 믿음의 신앙고백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잘못된 문화와 법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명캠페인 참여 http://faithaccusation.kr



성경의 바른번역, 바른해석, 바른적용①

나는 선한 목자이다

(요 10:1-42)

요한복음 10장은 9장의 연속이다. 안식일에 자기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끈질기게 주장한 사람을 출교한 바리새인들을 오히려 그들이 소경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예수께서는 이제 그들이야말로 이스라엘의 목자가 아니라 강도요, 절도요, 도적이라고 선언하신다. 그리고 참 목자가 누구인가를 가르치신다.

고대 근동 세계의 사람들은 거의가 유목민이었다. 그들은 양들과 함께 살기 때문에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아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고대의 대 제국의 통치자들은 자기들을 가리켜 “목자”로 칭한다. 바빌로니아 제1왕조 6대 왕(1792-1750 BC)이었던 함무라비는 그의 법전 서문을 “엔릴의 부름을 받은 목자, 나 함무라비는 부요함과 풍성함을 다같이 모으며..”라고 시작한다. 또한 법전 후기에도 “나는 진실로 평화를 가져오는 목자”라고 쓰고 있다. 함무라비 이전에 우рук의 왕, 엔메카르, 라가쉬의 엔시, 세계 최고 오래된 법전을 만든 우루-남무, 이권의 리피트 아쉬람 등도 다 자기를 목자로 칭하고 있다. 심지어 성경에 언급되고 있는 디고랏 빌리셀, 아수르 바니팔, 에사르하돈, 아수르 바니팔 등 메소포타미아 일대를 누비던 왕들이 다 자기를 “목자”라고 부른다. 이집트의 아멘호텝 3세(1411-1374)도 자신을 “선한 목자요 모

든 백성을 위하여 불침번을 서는 자”라고 칭하고, 세티 1세(1313-1292)는 “선한 목자요, 그의 군사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왕들이 자기를 목자에 비유하는 것은 아마도 목자의 역할과 왕의 역할의 유사성 때문인 것 같다. 양들은 물과 목초와 그들을 지켜주는 목자가 필요한 존재이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이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그들을 지켜 보호해줄 왕이 필요한 존재이다. 따라서 왕들은 그의 백성들이 쉽게 잘 이해할 수 있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하여, 왕과 백성의 관계를 설명하고 이해시키려 한 것이다.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은유의 대상이 다르다. 양떼들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자기 소유의 양떼들을 위하여 정지지도자나 종교지도자들을 그의 목자로 고용하여 그들을 먹이고, 돌보며, 보호하고, 지키도록 양떼를 맡기셨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자기 살기 위하여 오히려 양떼들을 학대하고 착취하며, 유기하고, 흠여버렸다. 양들이 흠여지면 당장 포식자들의 밥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무책임한 목자들을 하나님은 샅꾼 목자요, 강도요, 절도요, 도적이라고 부르셨다. 하나님께서는 이들로부터 목자의 직분을 빼앗고 하나님께서 진화 목자가 되시겠다고 선언하신다(렘3:10).

렘 34:15-16에 보면 “내가 내 양을 치며, 내가 그들을 높게 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그 잃어버린 것을 찾으며, 그 흠여진 것들을 돌아오게 하고, 상한 것을 싸매어 주며, 병든 것을 강하게 할 것이며..” 정의로 그들을 먹일 것이다.”라고 선언하신다. 양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목자가 되시겠다는 “양을 치다”는 동사를 명사형으로 바꾸어 “내가 내 양의 목자가 되며”(I myself will be the shepherd of my sheep)라고 번역하고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패가 되면 다윗을 목자로 주신다는 약속을 하신다. “내가 그들을 먹이는 한 목자, 곧 내 종, 다윗을 그들 위에 세울 것이니,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는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나 여호와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가운데 지도자가 될 것이다. 나 여호와와의 말이다.”(렘 34:23-24)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여기서 다윗을 목자로 주신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 다윗은 에스겔보다 이미 500년 전에 유다 나라의 왕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이다. 그렇다면 그 다윗은 실제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시울을 이은 2대 왕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목자”라는 의미라고 할 것이다. 다윗은 어떠한 목자였기에 다윗과 같은 목자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사무엘 상 17장을 보면 소년 다윗이 시울 왕 앞에 나가서 자기가 골리앗을 대항하여 싸우겠다고 자청하며, 자기가 어떠한 목동이었는가를 진술한다(17:34-37). 다윗의 말을 들

어보면 그는 비록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지만 그가 맡은 양 치는 일에 대한 책임감이 철두철미한 사람이었다. 아버지의 양을 구하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거는 사람이었다. 그러한 정신과 책임감과 열정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골리앗을 타도하도록 일어나게 하였으며, 결국 그는 목숨을 걸고 도저히 당해 낼 수 없을 것 같은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의 양떼들을 보호하고 지켰다. 아버지의 양떼를 명수들로부터 지키는 사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을 골리앗으로부터 지켰다.

뿐만 아니라 시울이 늙은 제사장 86명을 죽이고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자 그는 아들람 골로 피난 갔는데, 이때에 다윗은 시울의 핍박을 피하여 도망다니며 떠돌이 된 400명 기랑의 난민들을 받아들이고 계속 생사를 같이한 동역자로 삼았다(삼상 22:1-2). 세상에서 밭을 이기 어려운 인생들을 받아주고 안아주고 생사의 고락을 함께 나누는 목자였다. 울 데 갈 데가 없는 인생들을 받아주고, 품에 안아, 상처를 싸매고 위로하며,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의 생명의 보호자가 된 것이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였으며, 세상에서 쫓겨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하여 도망 다니는 인생들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어 이들을 살리는 일을 했다. 참으로 위대한 목자였다.

손석태 박사(한국성경교회)
다음호에 계속

목양
포커스

나의 믿음과 결의에 대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회적이나 교회의 현실을 목회자들은 어떠한 생각과 신념을 가지고 자신들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양육하며 가르치면서 그들을 푸른 초장 울타린 물가로 인도 하고 있는 것인가? 스스로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적극의 시대는 세계적이나 우리나라의 현실 속에나 모든 사람들의(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입을 통해 들려오는 말은 종말이 다가왔다고 말할을 한다.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종말로 치달아 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사탄이 자기의 패자일마 안 남을 알고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이 시대가 종말로 다가왔다는 것이 우리 현실 속에서 눈으로 또는 삶 속에서 실감 나게 다가오고 있다.

교회 내에서까지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여 전하게 할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WCC, 동성애, 공산주의, 사회주의, 페미니즘 등의 세력을 규합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탄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나라와 사람들을 통해 법과 이념과 종교 단체들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하고 있는데 이러한 세력이 오늘날 우

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까지 몰고 들어와 이 땅에 주님의 피 값으로 세워진 교회들을 유린하고 무너뜨리려고 정치인들과 법조인 단체 및 이념집단을 통하여 교회 깊숙이까지 침투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탄의 계략에 주의 종을 비롯하여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용당하며 영혼을 파괴당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는 것인데 사탄은 이것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죄라 금하신 것을 죄라고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오늘날 목회자가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하면 어찌 되겠는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호 4:6)는 이 말씀의 경고처럼 오늘날 이 나라의 진보사상과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목회자들이 말씀에 대한 무지와 변개로 인하여 사탄의 간계에 빠져 속아 넘어가 수많은 영혼들을 악의 구렁텅이로 이끌어 가고 있으며 안타깝게

도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분별의 영을 상실해 이를 깨닫지 못하고 사탄의 핏에 넘어가 교회는 다니고 있으나 영혼은 잠들어 있는 상태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사탄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천사로 위장한 사탄의 겉모습에 속고 있는 것이다.

이 시대 정치인들 지도자들이 자유가 아닌 자유를 부르짖고 평화가 아닌 평화를 외치며 사람이 아닌 사람을 이야기하고 진리가 아닌 거짓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음에 우리는 이러한 거짓 영들을 분별하여 교회 안에서부터 양의 털을 쓴 거짓 선지자와 거짓 양들을 몰아내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악한 영들과 싸울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의하고자 한다.

“사랑하는 자들이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요일 4:1)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
대표회장 박동호 목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20년도 목사고시 공고

2020년도 목사고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서 류 접 수 : ① 일시: 2019. 8. 30(금) 17: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② 장소: 총회본부(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③ 방법: 등기우편

* 목사고시청원서 작성 및 제출 안내: 총회홈페이지(www.aogk.org)→ 자료실→ 서식다운로드→ 교단서식→ 제15호 목사고시청원서(구비서류첨부)→ 2부 작성→ 지방회에 제출→ 지방회임원회 심의→ 1부 지방회 보관, 1부 총회본부에 제출.

* 총회목회대학원 2학년 재학생은 우선 ‘재학증명서’를 제출하고, 12월 졸업과 동시에 ‘졸업증명서’를 제출한다.

2. 서 류 심 사 : ① 일시: 2019. 9. 05(목) 오전11시 ② 장소: 총회본부 회의실

3. 오리엔테이션: ① 일시: 2019. 9. 26(목) 오전10시 ② 장소: 총회본부

4. 목사고시료 : ① 납부일: 2019. 8. 30(금)까지 ② 금액: 50만원

③ 입금계좌 : 국민 061701-04-17686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5. 목사고시 : ① 일시: 2020. 2. 10(월)~11(화) 오전10시 ② 장소: 총회목회대학원 강의실

6. 전도사 경력 계산은 만으로 하되, 계산일은 4월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7. 직장파 목사직은 겸할 수 없으므로 직장을 가진 자는 목사고시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8. 목사고시 응시 자격은 헌법 제37조 및 헌법시행규칙 제13조를 준용한다.

9. 서류심사 이후에는 목사고시 서류일체와 고시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 회 장 목사 신재영 고 시 위 원 장 목사 김민규
총 무 목사 이경진 고시위원회서기 목사 이석호

‘천로역정:천국을 찾아서’ 성황

4주 연속 다양성 영화 박스오피스 1위 이어가



세계 최고의 기독교 고전으로 손꼽히는 천로역정을 애니메이션화한 <천로역정:천국을 찾아서>가 7월 1일, 개봉 19일 만에 누적관객수 20만 명을 돌파하며 꾸준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더군다나 4주 연속 다양성 영화 박스오피스 1위를 지키고 있어 놀라운 흥행기세를 보여주고 있다.

<천로역정:천국을 찾아서>는 죄악으로 어두운 멸망 도시에서 살아가던 ‘크리스천’이 우연히 접한 한 권의 책을 통해 알게 된 천국도시를 향해 나아가는 험난한 여정을 그린 바이블 어드벤처다.

<천로역정:천국을 찾아서>는 고난과 수난 속에서도 꿋꿋하게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는 ‘크리스천’의 모습을 통해 감동을 전하고, 화려하고 거대한 스케일과 볼거리로 전 세대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으며 웰메이드 애니메이션으로 자리매김해 극찬 세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계속되는 교회들의 단체 관람과 온 가족이 함께 관람하는 관객들도 더욱 증가하고 있어 흥행 기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천로역정:천국을 찾아서>는 전국 극장에서 상영하고 있다.

제13회 사랑의 삼계탕 나눔잔치 갖는다

사)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중앙회(이사장 이선규)는 제13회 사랑의 삼계탕 나눔 잔치 행사를 지난 7월 12일(금) 오전 11시 서울역 파스한채운터를 시작으로 6개 지역 3,500명에게 제13회 사랑의 삼계탕 나눔잔치를 개최했다.

사랑의 삼계탕 나눔잔치는 서울역에 이어 16일에는 인천서구 계양구 지역과, 17일에는 주안역 남광장, 18일에는 부평역 북광장에서 어려운 국민층에게 삼계탕 나눔 행사를 했고, 20일에는 삼산동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지난 1년 동안 사랑의 빨간밥차에 농산물을 지원한 고마운 상인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삼계탕 나눔잔치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한여름에 외로움과 병고에 사달리며고 생애하는 독거어르신, 쪽방촌 노인, 장애인, 농산물을 지

원하는 도매상인들을 대상으로 6개 지역에서 오전 11시에 진행되었다. 또 이시간에 어르신들을 위해 즐거운 공연과 선물도 나누어주며 위로 격려했다.

2007년 창립된 사)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중앙회는 소외계층에 무료급식과 다양한 생필품 지원사업을 벌이는 공익 비영리법인으로 여름철에 진행되는 ‘사랑의 삼계탕 나눔잔치’ 외에도, 연간 50여만 명의 홀몸노인들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사랑의 빨간밥차’ 운영과 함께 국내 24개 지역과 해외 33개국의 ‘지구촌 사랑의쌀독, 강남이동 푸드마켓’을 설치해 국민가정과 노약자에게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주)케이세움건설, 에일세무법인, 대한항공배구단, 한사랑나눔봉사단 등의 후원으로 진행되었다. (문의 070-7834-1343)

가족세트전도 참관기

평생 전도자로 살리라

저는 인천시 연수구에서 목회하는 유순혜 목사입니다. 목사님들이 은퇴해야 할 시기가 가까운 나이 58세에 신학교에 입학해서 학부 4년 때 개척 늦은 나이에 시작한 목회였기에 다른 목사님들보다 열배나 더 많은 노력과 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제자신이 보기에도 목사로 쓰임받기에 부족한 사람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순종뿐이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전도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았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니다. 전에 여러 가지 전도세미나에 참석하여 훈련을 받아보았지만 자신감이 나지 않았습니니다.

교회주변은 먹자골목으로 어떻게 전도해야할지 방법을 몰라 고민하고 있던 중 같은 생각을 하고 있던 서경란 전도사가 획기적인 전도 방법이 있다하여 가족세트전도훈련 162기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박영수 목사의 강의를 듣고 곧바로 박영수 목사와 함께 전도현장에 나갔습니니다. 나가자마자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과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머리에 손을 얹고 대범하게 축복기도와 영접기도까지 이끌어내는 것을 보면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구원받은자를 회심시키는 모습을 목도했습니다.

축복기도와 영접기도 후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온가족의 신장명세와 핸드폰 번호까지 수첩에 적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세트전도구나 “나도 이렇게 전도하면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나의 사역지에 서 다시 한 번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로 했습니다.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
031)692-1691, 010)3730-2573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노인복지선교와 청년목회비전”을 이룬다

신성교회와 생명나무교회와 ‘신생명나무교회’로 연합하고, 청년지역과 노인지역의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

지난 7월 7일(주일)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에 위치한 신생명나무교회 본당에서는 ‘신생명나무교회 연합과 엘드리노인대학 개설 기념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오랫동안 청량리와 서울역에서 노숙자 지역과 어르신 교실을 이어온 신성교회와 청년지역의 비전을 펼쳐온 생명나무교회와 공식적으로 하나 되는 연합을 이루는 자리였다.

신성교회와 생명나무교회의 아름답고 온전한 연합을 위해 장목사는 두 달 동안 두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회로 준비하였으며, 지난주에는 교회 전디구장에서 두 교회 어르신들과 청년들이 함께 운동을 통해서 진교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예배에는 청년들의 비전선언문 낭독을 시작으로 김진표 장로(국회조찬기도회 회장)와 노웅래 의원(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영진 장로(기독교UN/유네스코국제 이사장), 임동진 목사(한국기독교문화예술인총연합회 회장), 이필재 의장(서울시 마포구의회 의장) 등 장한일 목사와 함께 동역하며 응원해온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축사와 격려사를 하였으며, 윤석진 총장(몬테라고국제학교, 아시아 3대 테너)과 김주리 명장(세계기네스북 최장 9시간 20분 판소리기록보유자)의 축가로 더욱 교회연합에 그 의미를 더했다.

장한일 목사의 인도로 드려진 예배는 오수철 장로(기감 전국남선교회 경기연회 연합회장)와 마지 원 목사(대흥동교동협의회의 회장)의 기도, 최선자 권



사(해돋는마을이사)의 요 20:31 성경봉독에 이어 임청화 교수(백석대 음대)가 특송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날 송윤희 목사(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 연합회장)는 ‘말씀을 기록한 이유’라는 말씀을 통해 ‘교회가 갈라지는 것은 여럿 봤는데 합진다고 하는 것은 드물다’면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도 함께 지켜라’는 말씀을 이 교회가 본을 보이고 있다’고 축하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 이웃과 나누며 풍성하게!”

아현 · 익산교회 생명나눔예배...225명 장기기증 희망등록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며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남은 반년을 살아가길 자신의 신앙을 재다짐하는 맥추감사주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과 나누며 풍성한 기쁨을 누린 교회들이 있다.

지난 7월 7일 맥추감사주일 창립 40주년을 맞은 안디옥교회(담임 박성호 목사)는 기념감사예배에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탁 목사, 이하 본

부)를 초청, ‘각막이식 수술비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 600만 원은 지난 5월 19일 여선교회 주최로 열린 바지회 수익금으로 마련됐다. 당시 여선교회원들은 직접 음식을 만들고 물품 기부에 앞장서는 등 힘을 모았고 시각장애인에게 빛을 선물한다는 좋은 뜻에 공감한 많은 성도 및 지역 주민들이 참여했다.

박성호 목사는 “감사의 40년을 돌아보고, 희망의

40년을 기대하는 이 자리에서 생명나눔운동과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 더 큰 그릇으로 생명나눔을 통한 선교에 힘쓰는 안디옥교회가 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아현성결교회(담임 조원근 목사)와 익산원도교회(담임 송현석 목사)는 전 성도가 생명나눔을 약속하며 신앙을 다지는 자리를 가졌다.



신이 내린 바다 천사의 섬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으로 만든 소금물

구강건강의 파수꾼 옥금수(소금물)



체험담

- 영등포에서 목회하고 있는 박00 목사님은 해마다 감기로 인해 불편한 일이 많았는데 옥금수(소금물)로 양치를 하고난 후 감기도 걸리지 않고 입냄새도 사라져서 감사하다는 전화를 해주셨습니다.
- 부산에 사는 권00 권사님은 풍치로 늘 음식 먹기도 불편했는데 옥금수(소금물)로 양치하고는 많이 좋아져서 감사하다며 재주문을 해주셨습니다.

옥금수의 효능

천해의 청정바다인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소금으로 만든 옥금수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무기질과 인체에 이로운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변을 잘 통하게 해주는 성질과 몸을 따뜻하게 하고 산성화된 몸의 균형을 맞춰주며, 좋은 소금을 잘 먹으면 장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이란 말의 금은 작은 금과 같이 귀한 물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금물로 가글과 양치를 하면 잇몸의 염증을 가라 앉히고 구강이 건강해지며 세균으로 가득한 혀와 입 안의 위생 및 장을 이롭게 합니다.

사용법 및 효능

*소금물 1/4컵을 따라 칫솔에 묻혀가며 치아에 소금물이 골고루 묻혀지도록 골고루 닦아 줍니다.
*이를 반복하며 최소 5회 이상 치아를 골고루 닦아주면 치아 표면 미백과 함께 잇몸 질환까지도 사라지는 광범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치아를 닦은 후 가글하실 때는 입 안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여러번 반복해 주시면 성대보호, 감기에 방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 양치의 주요 효능

1. 충치 예방
2. 풍치 예방
3. 잇몸 질환
4. 혀 살균
5. 편도 보호
6. 감기 예방
7. 기침 예방(소금물 양치, 가글의 효능)



옥금수(소금물) 홍보 용품 활용을 희망하시는 교회와 성도님께는 500ml 20pet-30pet 단위로 보내 드립니다. 500ml 20개 들이와 500ml 30개 들이 두 종류가 있으며 500ml 1pet 당 1,000원입니다. 수령하시는 교회 또는 성도님들께서는 주소, 성함, 연락처를 문자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수가 잘 빠진 천일염입니다”

전국의 교회에서 사랑의 바자회 또는 이웃돕기 선교회 등에서 판매를 위해 구입을 원하시는 경우 전화로 문의해 주십시오!

20개들이 20,000원

30개들이 30,000원

옥금수(소금물) 판매점을 모집합니다

상담 문의

010-3000-7602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357-991640(김옥태)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9년 전국 신학생 연합 개강수련회

주제 : '거룩한 능력을 덧입자' (요 17:17)

강사



조용묵 목사
교단 정책위원장
은혜와진리교회



신재영 목사
교단 총회장
새김교회



임용재 목사
교단 직전총회장
신정리순복음교회



임종달 목사
교단 중경총회장
전주은혜와진리교회



김용덕 목사
교단 중경총회장
영동제일교회



김인찬 목사
교단 중경총회장
창신교회



정의섭 목사
교단 부총회장
한소망교회



변원식 목사
창조교회

준비위원



윤경현 목사
신학발전위원장
보은순복음교회



조선남 목사
교육국장
대림제일교회



임형순 목사
신학교리국장
아멘교회



이경진 목사
교단 총무
다사랑교회



오세준 목사
청년국장
순복음삼동은교회

일시 2019년 8월 19일(월) ~ 20일(화) 1박 2일

장소 은혜와진리수양관 (031-227-5992~3)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주관 신학발전위원회, 신학교리국

대상 총회 산하 전국 신학교 재학생 및 교수 전원

회비 1인당 30,000원
(입금계좌 : 농협 302-1077-0100-11, 임형순-신학교리국 국장)

문의 및 연락처

신학교리국 국장 임형순 목사
(010-9115-4727, zoollia@hanmail.net)

광고 사항

1. 참석인원(교수, 신학생)을 2019. 8. 5(월)까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명찰 및 숙식준비)
2. 접수는 2019. 8. 19(월)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3. 신학교별 장기자랑 시간에는 학교소개와 장기자랑을 함께 합니다.(각 신학교에서는 수련회 전에 미리 준비)

첫째 날(8월 19일 월요일)

시 간	프 로 그 램	내 용
12:00~13:00	등 록	
13:00~14:00 (60분)	개 회 예 배	찬양 : 총회신학교 시회 : 이경진 목사(교단 총무) 기도 : 윤경현 목사(신학발전위원장) 설교 : 신재영 목사(교단 총회장)
14:10~16:00(110분)	특 별 강 의	시회 : 임형순 목사(신학교리국장) 강사 : 조용묵 목사(정책위원장)
16:00~16:10	사 진 촬 영	
16:20~17:50 (90분)	신 학 교 소 개 및 장 기 자 랑	진행 : 변원식 목사(창조교회)
17:50~19:00	저 녁 식 사	
19:00~21:30 (150분)	영적 능력을 덧입자	찬양 : 예하성 전북신학교 시회 : 광주신학교 교수 헌금 : 총회신학교 학생회장 강사 : 임용재 목사(교단 직전총회장)
21:40~23:00(80분)	기 도 합 주 회	시회 : 오세준 목사(청년국장)
23:00~	취 침	전국신학교학장 및 교수 간담회

둘째 날(8월 20일 화요일)

시 간	프 로 그 램	내 용
06:00~07:00	자 유 로 운 금 식	빵, 시리얼 자유취식
07:00~08:00 (60분)	말씀의 능력을 덧입자 (성경의 무오성과 묵화)	시회 : 윤경현 목사(신학발전위원장) 강사 : 김용덕 목사(중경총회장)
08:00~08:30	산책 및 개인정비	
08:30~10:00 (90분)	사랑의 능력을 덧입자 (목회자와 인격)	시회 : 임형순 목사(총회신학교 교수) 강사 : 김인찬 목사(중경총회장)
10:10~11:40(90분)	신한 능력을 덧입자 (열매 맺는 목회를 위하여)	시회 : 오세준 목사(예하성 총회신학교 교수) 강사 : 임종달 목사(총회목회 대학원 원장)
11:40~13:00	점 심 식 사	
13:00~14:00	폐 회 예 배	찬양 : 예하성 부산신학교 시회 : 이경진 목사(교단 총무) 기도 : 임형순 목사(신학교리국장) 강사 : 정의섭 목사(교단 부총회장) 헌금 : 예하성 광주신학교 학생회장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 회 장 목사 신재영 신학발전위원장 목사 윤경현
총 무 목사 이경진 신 학교 리 국 장 목사 임형순

초대시

전혜수 // 은혜와진리교회 권사

말씀 앞에 서면

말씀
앞에 서면
의기양양 나의모습 사라져버려...
내생각과 내주장은 힘을 못 쓰고
어린양의 순한 모습 바꾸시는 주

말씀
앞에 서면
혼란스런 마음속은 질서를 잡고
속삭이는 주의 음성 마음에 담는
귀있는 자 되게 하셔 듣게 하는 주

말씀
앞에 서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
거역하는 내 마음을 회개케 하사
아멘으로 받을 자세 되게하는 주



말씀을 대할 때면 달라지는
내 모습 보면서

경상남도 선교 130주년 기념 기도성회

오직 예수 치유와 회복을 위해...

CTS기독교TV(회장 김정철) 경남방송(지사장 신규식)은 경남성서화운동본부(본부장 오승균 목사)와 함께 <경남선교 130주년 기념 오직 예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성회>를 경남 창원, 거제, 밀양, 진주 4개 지역에서 개최한다.

이번 집회는 CTS기독교TV 플링그의 진행자 브라이언 박 목사를 강사로 초청해 경남선교 130주년을 되새기며 경남지역의 복음화와의 기도의 회복을 목

적으로 기획됐다. 창원지역을 시작으로 거제와 밀양, 진주에서 진행되는 이번 집회 실행은 9월 한 달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CTS부흥집회 오직예수> 방송될 예정이다. 문의: CTS경남방송(055-261-0044)

※집회 안내 ▲창원지역 - 7월 12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창원 상남교회(이장교 목사, 예장통합) ▲거제지역 - 7월 14일 주일 오후 4시 거제 교회교회(박정근 목사, 예장고신) ▲밀양지역 - 7월 20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밀양 삼문교회(박은득 목사, 예장고신) ▲진주지역 - 7월 21일 주일 오후 2시 진주성광교회(정태진 목사, 예장고신)

※시청방법 - CTS는 각 지역 케이블TV와 디지털 케이블, SkyLife (ch 183), IPTV(KT OllehTV (ch 236), LG U+ (ch 289), SK Btv (ch 301)), 해외 위성(CTS WORLD, DirecTV), CTS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 세계에서 시청할 수 있다.

전국장애인 부부 초청대회,

고양시 지체장애인 부부 ‘정연상’ 수상

지난 7월 3일(수) 글래드 여의도 호텔에서 시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주관하는 ‘2019년 전국장애인 부부 초청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는 장애인 부부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사회의 모범이 되는 분들에게 상을 주는 행사였다.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창원)에서는 표종태·정미형 부부를 추천하였고, 보건복지부장관 표정인 ‘정연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고양시에 살고 있는 지체장애인 표종태·정미형 부부는 결혼생활 22년 동안 남편과 아내, 아버지 와 어머니로서 충실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살

아온 부부이다. 이런 부부의 삶의 이야기는 심사위원들에게 많은 감동을 선사하며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아 ‘정연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시상식 후 저녁 만찬을 함께 나누고 하룻밤을 묵은 뒤, 롯데타워에 위치한 이쿠이리움을 관람하는 것으로 행사는 마무리되었다.

사설

‘북핵폐기’ 빈틈없는 한·미 동맹의 기반 위에

북한은 철저히 한국을 이용하여 한미동맹을 흔드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한·미 간 비핵화와 제재 해제에 선후관계를 둘러싼 엇박자를 경계해야 함에도 먼저 무엇인가를 해제시켜 핵폐기 의지를 약화시키려는데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우리 국민이 핵을 머리에 이고서는 평화통일을 외칠 수 없음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빈틈없는 한·미 동맹의 기반 위에서 확고한 한반도 평화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돌아온 것은 그만큼 국제사회의 북핵제제가 위력을 발휘했다는 방증이다. 우리가 지레 북한의 주장대로 미국에 대북 제재 부분 해제를 주문해선 안 된다. 만약 앞으로 남북 대화를 통해 제재에 구멍을 내는 식으로 움직이면 이번 판문점 역사적 회동은 이벤트로 끝나는 참담한 실패를 맛보게 될 것이다.

CSIS 빅터 차 한국 석좌의 경고도 새겨들어야 한다. 그는 이번 “DMZ 만남”은 좋은 시시적기 기회가 되겠지만 진정한 비핵화를 수반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인권 유린자에게 정통성을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우선주의의 트럼프 행정부가 대선

승리를 위해 미국 안전 보장용 북핵 동결 타결로 선회한다면 이 같은 우려는 현실이 되고 만다.

한국은 아직 정전 중일 뿐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다. 북에는 핵을 가진 북한이 힘을 한껏 과시하고 있다.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에워싸고 공격할 때 유대왕 아비야와 유다백성은 전쟁이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지만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자기들보다 2배나 많은 군사를 상대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이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대하 20:15)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이 한반도에서 전쟁 없는 평화통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해야 한다.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민 25:12, 13)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자유와 평등과 사랑이 실현되는 평화의 한 나라가 한반도에 실현되도록 우리가 먼저 깨어 준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이다.

해외 단기선교 철저한 안전관리 절실

올해도 한국교회는 대략 5~10만의 단기선교팀이 세계 곳곳으로 파견되어 봉사활동과 복음전파에 매진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사단법인 한국외국관리재단이 2019년 여름 단기선교봉사 활동 안전관리에 대한 지침을 전했다.

외교부의 통계에 의하면 2018년 해외 사건사고 피해 건수는 총 2만405건으로, 살인 41건, 강도 194건, 절도 3334건, 강간 156건, 납치 감금 128건, 폭행 상해 585건, 사기 670건, 안전사고 사망 762건, 연락두절 493건, 교통사고 391건, 기타 5831건 등 다양한 유형의 피해 사례가 집계됐다.

외국관리재단은 해외 단기선교봉사팀이 겪을 수 있는 위기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재단은 “지각, 소재불명으로 일정 지연, 출입국 절차와 세관검사, 차량 대여, 제한지역의 통행허가 등의 행정으로 인한 어려움이 가장 비일비재하다”며 “선교나 봉사활동을 떠나기 전에 위기관리 사전 교육훈련은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또 “질병, 전염병, 풍토병의 감염과 교통사고, 익사, 부상, 추락사고 등의 안전사고, 태풍, 지진,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 도난, 분실, 강도, 상해, 성추행, 성폭행, 급성 유행, 인질납치 등의 각종 사건사고를 비롯해 체포, 억류, 추방, 전쟁, 내란, 시위, 쿠데타 등의 정치적 요인으로 인한 위기에도 항상 대응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외국관리재단은 위기관리 교육훈련에 대해 강조하면서 현지 코디로부터 도움을 받을 것을 제언했다. 이들은 “해당 국가에 대한 위험 정보 분석과 문화정보 공유는 물론, 위기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지 코디와 연결하여 현지 상황과 위험 노출 정도 등을 확인하고, 위기예방 안전수칙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선교단체나 교회가 추진하는 단기봉사활동 국가별 안전수칙과 신변안전 유의사항 등은 외교부 홈페이지(www.0404gokr)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 집 고 문 : 정책위원장 조응목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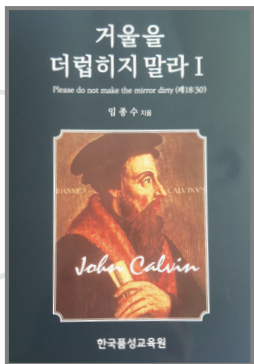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 배성환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2)2677-4609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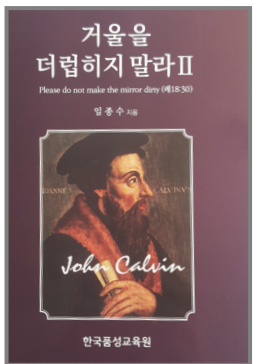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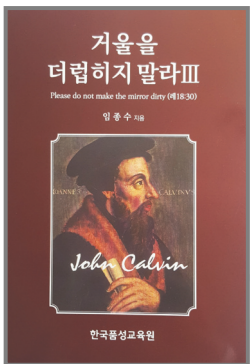
믿음은 구원으로 인도하고 품성은 행복과 성공으로 인도한다



제1권 품성과 비슷한 덕목인 성격, 덕성, 인격, 개성을 바울은 어떻게 개발하였는가? 이조 500년 유교와 고려 500년 불교가 만들 어낸 윤리 도덕이 무엇인가? 기독교의 윤리부문 7가지와 자기 계발의 부문에 필요한 10가지를 논하였다.



제2권 대인관계 부문 10가지와 신사적인 성도가 되기 위한 품성 4가지와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품성과 더 좋은 것과 가장 좋은 품성이 무엇인가를 논하였다.



제3권 부정적인 품성 6가지와 영적전쟁의 품성 10가지와 신자가 물리쳐야 할 세력들 즉 점과 굿, 자살, 인종차별과 이단적결을 논하였고, 올바른 생활을 위한 실천분야 5가지를 논하였다. 만약 이 책을 매일 한 과씩 훈련한다면 훌륭한 신자가 될 것이다. 곧 새 언약과 품성과 자유의 대 헌장 두 권이 출판 될 것이다.

품성은 성공과 행복의 열쇠이다. 품성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올바른 일을 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이다.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는 영적인 면만 강조하였고 육체를 가진 인간의 삶에 대해서는 등한시하여 삶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야 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남의 발에 고추를 따가는 생활이 그 대표적인 이야기이다. 그래서 저자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영적훈련을 해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품성에 관한 책자를 7권 출판하였다. 최근에 출판된 ‘거울을 더럽히지 말라’ 1,2,3권을 소개한다.

강의 안내

각 교회에서 시행되는 각종 중직자 세미나
각 지역에 거주하는 목회자들의 소 구름

책 구입처

cslim4305@gmail.com 임종수 원장
재무담당 이미란 이사 010-8618-9982
계좌번호 농협 351-0771-1742-13
한국 품성교육원

2019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7회 청소년 연합수련회

주제 : 'The Truth' (요 14 : 6)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 요 14:6 -

♡♡ 모시는글

존경하는 교단산하 목사님!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영혼을 위해 애쓰시며,
진리를 위해 교단을 섬기시는 목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단내 미자립교회 및 소규모 청소년들을 사역하는

교회들이 지방회별로 팀을 이루어 연합하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9 제7회 청소년연합수련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목사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국 올림-

- 일 정 : 2019년 8월 1일(목) ~ 8월 3일(토) 2박3일간
- 장 소 : 포항YPC수련원(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신창길 271)
- 주 제 : 'The Truth' (요 14 : 6)
- 프로그램 : 만남&레크레이션, Open mind, 경배와 찬양, 부흥회, 찬양콘서트, 특강, 공동체훈련, 장기자랑, 발표(간증)
- 대 상 : 본 교단 산하 전국 각 교회 중 · 고등부
- 등 록 비 : 70,000원(식대, 숙박비, 교재비 일체 포함)
- 접수방법 : 전화 신청 후 1인당 1만원 계좌송금(선착순 마감)
미자립교회는 상담 후 등록비 조정 가능함
- 접수 및 문의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육부
조선남 목사 : 010-5119-0164, 배윤호 목사 0101-7331-4565
- 등록비입금 및 후원금 계좌 : 하나(외환)은행 191-18-47059-4(예금주 임형순)

고문



조용목 목사
교단 정책위원장
은혜약진리교회 담임

대회장



신재영 목사
교단 총회장
새김천교회 담임

주요 강사



신재영 목사
교단 총회장
새김천교회 담임



이경진 목사
교단 총무
다사랑교회 담임



조선남 목사
교육국장
대림벤엘교회 담임

대회본부장



조선남 목사
교육국장
대림벤엘교회 담임

진행위원



오세준 목사
순복음침술은교회 담임



임형준 목사
순복음아연교회 담임



변원식 목사
청소교회 담임



배윤호 목사
안디옥교회 부목사



권승철 목사
남원중앙교회



고대운 목사
순복음아연교회

주관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육국 후원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및 각 지방회, 대림벤엘교회 교육부